

같은 인가탐 방식 달라도 “생각 표현할 기회 있었으면”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2024학년도 1학기 ‘인간의가치탐색(인가탐)’을 수강한 박세은(미디어학 2023) 씨와 이경빈(스페인어학 2023) 씨, 백민철(미디어학 2024) 씨는 같은 학기 같은 필수교과를 들었지만 수업에서 경험한 강의와 토론의 비중은 달랐다.

같은 학기 같은 교과 수업의 무게중심은 달랐다

박 씨가 수강한 S37분반은 교수 설명이 중심이었다. 철학자의 생애와 주요 철학적 담론을 교수가 설명하고 학생에게 생각할 주제를 던지는 방식이었다. 박 씨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많아서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학기 이 씨가 수강한 G42 분반에서는 토론과 발표의 비중이 컸다. 이 씨는 “교수님의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토론과 발표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됐다”며 “자신의 생각을 부담 없이 표현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수업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토론은 매주 약 15~20분씩 진행됐다. 학기 초 구성된 3~4명 규모의 조에서 의견을 나눈 뒤 토론보고서를 제출하고 조별 대표가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같은 학기 S34분반을 수강한 백 씨는 “교재에서 읽어서 내용을 정리하면 교수자가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짧은 소그룹 토론을 병행했다”며 “시험은 수업 진도를 바탕으로 한 암기형식이었다”고 기억했다. 또 “개별 피드백은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험부터 개별 피드백까지 분반마다 달랐던 평가 경험

평가와 피드백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박 씨의 분반에서는 중간 지필고사와 개별 발표, 기말 대체과제가 진행됐다. 중간고사는 수업에서 다룬 책과 철학자의 내용을 묻는 주관식과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기말은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 탐구한 내용을 PPT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씨는 기말과제를 준비하면서 주제 선정에 대해 한 차례 서면 피드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씨는 “발표나 기말과제에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수업 전후로 교수자에게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 씨의 분반에서는 중간고사를 글쓰기 과제로 대체했고 기말고사는 논술형으로 진행됐다. 토론과 발표도 평가에 반영됐다. 중간고사 대체 글쓰기는 희망 학생에 한해 개별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단순히 글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셨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2학기 S00 분반을 수강한 김명은(회계세무학 2024) 씨는 “교수자 강의, 팀별 토론, 발표 순으로 수업이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피드백은 없었다”고 기억했다. 평가는 중간·기말시험과 발표가 포함됐다.

방식은 달라도 “생각 표현할 기회 있었으면”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수업방식을 모든 분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담당 교수가 달라도 공통적으로 경험했으면 하는 수업 요소를 각각 꼽았다.

박 씨는 교수자의 설명을 통해 철학자와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다루는 철학자나 철학적 개념, 주요 논점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빈 씨는 토론과 발표를 꼽았다. 그는 “교수님마다 수업 방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최소한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볼 수 있는 기회는 공통적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씨 역시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학년도 1학기 인가탐을 수강한 황영석(전자공학 2021) 씨도 “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씨는 “글쓰기처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활동”을 꼽았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다룬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자 이기현(정보디스플레이학 2024) 씨는 “교수와의 질의응답”을 공통적으로 경험했으면 하는 과정으로 꼽았다. 그는 “어려운 주제를 두고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비슷한 나이의 학우들의 의견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방향의 깨달음을 얻을 기회”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더 나은 시민공동체와 자신의 성숙에 대한 고민이 남는 수업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사진 = 대학주보 DB)

교실 안팎에서 배우다 후마 교양수업의 여러 방식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동일한 교과를 여러 교수자가 담당하는 필수교과에서는 분반마다 공통된 교육목표를 어떻게 구현할지가 중요하다. 반면 필수교과 밖의 후마 수업에서는 교과목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업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신문은 토론과 실습, 현장활동을 수업에 활용하며 교양교육을 실천하는 교수들의 수업을 살펴보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들어봤다.

영상하고 토론하고 만들고 배움을 직접 해보다

국제캠 후마 정재원(여성학) 교수의 배분이수교과 ‘마음챙김과 비폭력대화’는 체험·실습형 수업으로, 이론을 학생들의 경험과 연결하고 있다. 학생들은 호흡명상과 소리명상, 먹기명상 등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과 나눈 뒤 다시 이론과 연결한다.

정 교수는 수업 내용이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삶의 도구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형 수업도 있다. 서울캠 후마 안병진(사회학) 교수는 ‘SF영화와미래정치’와 ‘문명전환기퀀텀리더십’에서 수업의 70% 이상을 조별 토론으로 운

영한다.

SF영화와 책, 뉴스 등을 AI·공동체·기후위기 문제 등과 연결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한다.

안 교수는 “더 나은 시민공동체와 자신의 성숙에 대한 고민이 남는 수업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강의실 밖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다

지역과 도시 자체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현장·프로젝트형 수업도 있다. 우대식(정치학) 교수의 ‘사회혁신학기제’에서 학생들은 제주와 영암 등에서 한 학기 동안 머물며 주민·상인·공무원 등을 만나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기획한다.

우 교수는 “교수자의 역할은 지식 전달보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교한 질문과 피드백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성일(사회학) 교수의 계절학기 ‘케이팝으로 사운드맵 그리기’ 역시 프로젝트기반학습(PBL)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흥대·이태원·성수동 등을 직접 찾아 K-pop과 장소의 관계를 조사해 음악지도를 만든다. 학생들은 세 차례 현장에 나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시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간다.

수업 방식이 다르면 필요한 조건도 달랐다

교수들은 수업방식에 따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체험·토론형 수업은 학생 간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교수자가 개별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적정 수강인원이 중요했다.

정 교수는 현재 60명인 수업의 적정 규모를 약 30명으로 봤다. 안 교수 역시 “25명이 넘으면 맞춤형 코칭이 어려워지고 60명 이상에서는 소규모 심층토론이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창작형 수업에서는 결과물을 직접 만들고 외부와 공유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백 교수는 “재료비·전시 관람비 등 실습비를 현실화하고 학생 창작물을 정례적으로 전시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창작은 발표와 공유를 통해 비로소 완결된다”고 말했다.

현장·프로젝트형 수업은 강의실 밖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이를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75분 수업에서는 현장활동을 진행하기에 시간이 빠듯하고 다음 수업까지 간격이 생겨 흐름이 끊기기 쉽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사회혁신학기제를 확대하려면 교수 한 명의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을 맡을 ‘전문 조교 인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